아버지와 두딸 '포교사가족'

원소연씨 불교사랑에 딸들도 동참 불교대학원도 함께 다니는 도반

불법(佛法)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세 부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포교사 가족, 아버지 원소연씨와 두 딸인 동임(44) 동애씨(42). 명절과 포교사연수 때 만나면 세 부녀는 포교경험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도반이 된다.

아버지 원소연씨(66세)는 충남조치원에서 작은 불구점 '보성당'을 운영하며 지역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79년 한 스님이 건네준 '불교입문'이라는 작은 책자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 40대 중반의 나이에 불교에 들어왔다. 남보다 늦었다는 생각과 환희심에 불교공부에 매달렸다.

불교 일도 맡았다. 태고종 연기군 연수회(硏修會) 고문. 문화원을 빌려 대법회를 열어 불교를 알리기 시작했다. 좋은 불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81년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전야제를 처음으로 제의해 조치원 거리를 연등으로 밝혔다. 이때부터 조치원에서는 연등축제가 시작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 원씨의 헌신적인 모습이 딸들에게 이어졌다. 포교사가 되기는 큰딸 동임씨가 먼저. 90년 조계종 제12기 포교사가 됐다. 이어 아버지와 동애씨가 13기 포교사가 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도 들어갔다.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해야 비로소 불교신자라고 할 수 있지요. 심오한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동임씨가 4기, 동애씨 5기. 불교로 처음 이끌어준 아버지를 이젠 딸들이 이끌었다.

◇97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성지순례 때의 원소연씨 세 부녀. 왼쪽부터 아버지 원씨, 동임, 한사람 건너 동애씨.

"우리 딸들이 등록금을 마련해줬어요. 애들의 권유로 가끔 도강도 했는데, 정식으로 불교대학원 7기가 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동임, 동애씨는 매월 한차례 서울구치소 원생들을 찾는다. 동애씨는 그동안 불교간병인회 활동을 하다 최근 언니와 합류했다. 자식을 키우며 청소년들의 고민을 알았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합니다. 하루 1분만 애기해 보세요."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불련, 재가조직으로

13개 승-재가단체 개인회원제로 전환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권한대행 김춘길, 이하 전불련)이 창립된 지 6년만에 승·재가 결합단체에서 순수 재가불자 운동조직으로 개편된다.

전불련은 2월24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전불련과 결합했던 13개 승·재가단체를 개인회원제로 전환하고 재가불자운동 조직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전불련의 결단은 9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지도부와 사무처가 개입해 지도체제의 새로운 구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불교내 정책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단권력 교체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른 중점사업으로는 △종단 권력 감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우리 불교 제자리 찾기 운동'과 △21세기 불교운동을 위한 TCBP(Twenty-one Century Buddist Project)를 추진하기로 했다.

TCBP 사업은 10여명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개최해 불교운동의 정체성과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에서의 불교역할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전개된다.

이밖에도 전불련은 한국불교사연구사업과 불교장기수후원회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전불련은 17일 오후 7시 조계사 강당(포교원 4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지도부 새로 구성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재정투명 - 종회 재가참여"

전국산악인련 요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3일 타워호텔에서 조계종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종회에 재가참여 △승풍진작과 승가정화 △투명한 재정관리 △문중파벌과 조장타파 △바람직한 신도회 조직 등을 요구했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사찰운영위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중앙종회의 경우 상하원제 또는 재가자 참여를 주장했다.

승풍진작과 승가정화를 위해서도 조계종사태 당사자가 철저히 참회하고, 문중불교를 조장하는 폐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신도회를 재가불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현수총재는 성명 발표와 관련 "조계종사태가 피상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재발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조계종단의 안정과 불교발전을 위한 3만 불교산악인들의 제언은 불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할 경우 한국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BBS 올 예산 107억원 승인

불교방송 재단이사회(이사장 도후스님)는 2월26일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99년 예산 1백7억원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방국 감사 및 미수금 특별 손실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사 임기가 만료된 지하(前 중앙승가대 총장)·정우스님(구룡사주지)과 감사인 혜담스님(광주 각화사주지)의 사임이 결정됐다. 또 서돈각(대한불교진흥원 원장)이사와 종하스님(서울 관음사주지)은 연임됐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참나 참사랑 복지협회' 창립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전화(회장 도각스님)는 지난 1일 달마선원에서 마음의전화 개통 4주년 기념식과 '참나 참사랑 실천 복지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대한장애인공예협회 송호섭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송호섭 회장은 "만해 대선사의 민족자주 독립정신과 국민의식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사랑 실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게 됐다"면서 "불자 장애인들에게 공예기술을 전수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952-2266 김재경 기자

새불교승가회 '자비의 쌀' 전달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가 2월24일 강북구와 도봉구 내 저소득 실직가정 50가구에 쌀 40kg 1가마씩을 전달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지난 해부터 서울 전역 구청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추천을 받아 직접 자비의 쌀을 전달해 오고 있다.

도필선 기자

교계 미인가 복지시설 파악

종단협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공동추진위원장 고산스님)는 최근 교계 미인가 복지시설 및 단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보지원센터는 이와함께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 단체, 사찰의 활동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02)737-6966

김재경 기자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민주화운동단체 및 인권단체 인사들이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법무부장관과 여당의 책임인사가 '구정권하의 정치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수사, 기소유예하겠다'는 확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사 경내에는 구정권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던 정치수배자들이 2백8일째(4일 현재)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길상사 청규 사중공개

"주객 막론하고 하루 세번 예불하라 외출할때 반드시 소임자에 알려라"

길상사(주지 지관)가 청정한 규율로써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길상사청규를 제정, 〈맑고 향기롭게〉 3월호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청규는 총 16항목. ▲사중의 대중은 주객 막론하고 하루 3번 예불, 공양시간 반드시 참례한다 ▲외출시 종무소 현황판에 출입시간 명기, 귀가시간 9시 엄수한다 ▲밖에서 자고 올 경우 대중에게 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외출 후 들어오지 못할 경우 소임자에게 전화연락한다 ▲저녁예불 후 손님이 찾아오면 객당에서 만나며, 일주문 닫는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 아침공양후와 회주 법정스님이 오는 날 점심공양후 대중공사. 사중 일은 대중공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날의 주요 행사는 매일 아침 공양후 소임자가 공지한다 ▲청소울력은 매주 일요일 오전 실시한다 ▲대중울력이 필요할 경우 당일 아침공양 후 발표, 기도법사를 제외한 전 대중이 동참한다 ▲1박 이상의 장기 출타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평일을 선택한다 ▲대중의 좌차는 비구계-사미계-나이 순 ▲법랍과 나이에 상관없이 사부대중 경어를 사용한다 ▲객스님은 3일이상 머무를 경우 대중의 허락 얻어야 한다 ▲음주, 흡연, 육류, 오신채 일체 금지한다 ▲신도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행주좌와에서 승가의 위의를 유지한다 ▲대중방부는 기존 대중의 추천 받아 대중 전원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 ▲위의 청규를 어겼을시 월요일 대중공사 시간에 유나(維那)소임자가 지적, 대중에게 참회한다. 청규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승가의 화합과 청정함을 위해 대중공의를 거쳐 퇴방 시킨다 등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도심 납골공원

빠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공원과 납골묘를 조화시킨 근린납골공원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시내 자연녹지대에 납골 및 조경시설을 갖춰 어버이날 참배와 경로잔치, 체육활동 등 평상시에도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숭조(崇祖)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공원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올해 안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쯤 서울시내에 숭조공원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완주화엄사 법당 누수등 훼손심각

전북완주 화엄사의 극락전 명부전 정묵당의 기둥이 부식되는 등 전북도내 사찰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전북도는 2월26일 도내 문화재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의 문화재가 관리상태 허술로 붕괴위기에 처하는 등 보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영남불교대학은 정초 방생법회를 기해 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영-호남불자들 인간방생 나섰다

장기기증 · 화장캠페인등 펼쳐

기존의 물고기 위주의 방생에서 벗어나 장기기증 서약·환경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인간 방생'을 실천하는 방생법회가 영·호남에서 나란히 열렸다.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방생법회를 선보인 곳은 대구의 영남불교대학과 전주의 전북불교회관.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2월28일 오전 감포 문무대왕릉앞 해변에서 정초 방생법회를 갖고 해변대청소와 바다살리기 캠페인을 가진데 이어 2일부터 6일까지 남구 대명동 영남불교대학에서 장기기증운동 및 화장문화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불교회관(원감 회일스님)도 2월25일 부산 해동 용궁사 방생법회를 기해 사후 장기기증 및 화장을 서약하는 행사를 가진데 이어 2월28일 회관에서 헌혈캠페인을 펼쳤다. 회일, 도현스님 등 6명이 장기기증을, 1백10명이 사후화장을 서약했으며 40여명이 헌혈에 동참할 정도로 반응이 좋자 전북불교회관은 오는 10일 남해 보리암 방생기도법회 때도 이같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헌혈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물고기 방생은 상징적으로만 하고 방생의 의미를 더욱 확대한 환경살리기 운동 및 인간방생 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야만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 · 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 · 하계 스콜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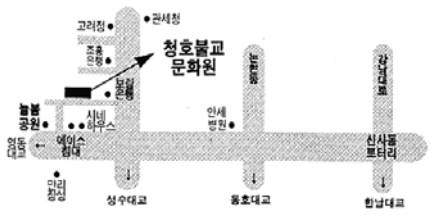
5. 원서교부 3월 · 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알기 쉬운 **금강경** 강의

⊙개강일 : 1999. 3. 15(月) 오전 10시 30분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강 사 : 송 찬 우 교수 (승가대)
⊙교 재 : 「뜻으로 읽는 금강경」 송 찬 우 역저
⊙특 전 : 선착순 50명의 접수분에 한해 수강료 및 교재 무료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전화 : 02)517-3052, 515-9604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 교 통 편 ·
1. 전철 3호선 압구정역 하차후 - 일반버스 74, 235번 - 좌석버스 774, 235번 타고 도산공원앞 하차(2정류장)
2. 전철 3호선 신사역 하차후 - 일반버스 83, 567번 - 좌석버스 567-1번 타고 늘봄공원앞 하차(2정류장)

출판 기획자 모집

20년 간 꾸준히 불교서적을 만들어 온 민족사에서 대중들이 널리 읽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신선한 감각을 가진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출판 기획 부분(대중적 불교서적 전문 기획자) 1명
학술, 전문서적이 아닌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서적 기획 요망

◉자격 및 조건
■자격 : 나이, 학력, 성별 불문
■조건 : 1주일 2~3회 출근 가능
급여는 면접 후 결정

◉일정 및 방법
■기간 : 3월 17일 서류 마감
3월 23일 면접(서류 전형 후 세부일정 개별통보)
■방법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기획가안 1부 제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출판물에 대한 전체적 개요, 구성, 필자 등을 간략하게 서술)

세상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무게를 나눠 가질 도반들이 있습니다. 민족사는 이 땅의 모든 불자들의 무게를 나눠 가지려 합니다. 또 우리들의 무게도 여러분께 조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족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110-130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